‘안전 취약’ 저수지 전남 최다

444곳이 ‘개보수 대상’인 C·D등급 … 체계적 예산확보 시급

전국 저수지 관리 현황

안전성이 취약한 전남지역 저수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전국 저수지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저수지 3333개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545개 저수지의 95.4%가 안전등급 C나 D등급으로 나타나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B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71개에 불과했고 C등급이 1,037개로 가장 많았으며 D등급도 437개나 됐다.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C등급 저수지가 274개, D등급 저수지가 174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C등급 158개, D등급 55개로 뒤를 이었다.

C등급 비율로는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가 한 개밖에 없는 제주도의 저수지가 C등급으로 제주도가 100%를 기록했고 대구가 87.5%, 충북이 84.3%로 나타났다.

D등급은 대전이 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광주가 42.9%, 전남이 37.3%였다.

황 의원은 “저수지의 안전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사 후 안전등급이 A나 B등급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 해양문화축제 100만명 즐겼다

‘춤추는 바다분수’ 등 볼거리 다양 … 전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올해 5회째를 맞은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물·빛·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 최초로 선보인 해양 음악분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함으로써 축제장을 찾은 100만여명의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사진〉

개막 첫날 군함·해경선·요트 등 40여척의 다양한 선박들로 구성된 해상 카니발을 비롯해 매일 주제공연과 어울리게 장식한 선상에서 해상멀티미디어 불꽃 쇼 등 각종 공연을 선보여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22개 동이 참여한 ‘목포시민 드래곤보트 대회’는 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돼 시민 참여형 축제의 틀을 갖추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일 3회 이상씩 ‘바다분수쇼’를 계획하고 있다”며 “춤추는 바다분수를 목포시 관광자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간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2010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봄 씨감자 보급

농기원 27일까지 신청받아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7일까지 봄감자 조기재배용으로 좋은 보급종 씨감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씨감자 품종은 ‘수미’로,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읍·면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씨감자 수량은 10a(300평)당 150㎏을 기준으로 농가에서 소요량을 판단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 재배용으로 이번에 신청된 씨감자는 파종 전인 10월 1~25일까지 20㎏ 단위로 포장돼 농가에 공급된다.

일반 재배용은 11월 1일께에 별도 예시해 공급될 계획이며, 공급가격은 미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갯벌 생태체험학습장 인기 함평군이 돌머리 해변에서 운영하는 ‘갯벌 생태체험학습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학습장은 각종 바다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족관과 각종 모형 등을 갖추고 있다. 〈함평군 제공〉

도립국악단, 국악 대중화·세계화 앞장

토요공연 293회째 … 재미·감동 거듭 ‘인기몰이’

전남 도립국악단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악의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국악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주 토요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토요공연을 꾸준히 펼쳐 7일 293회째를 맞는다.

도립 국악단은 테마가 있는 월별·주별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연 팜플릿에 해설을 추가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등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며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수의 여행사에 문화관광상품으로 소개돼 서울·경기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해외 고정팬을 확보하면서 해외 관광객 30~60여명이 매주 관람한 후 목포 인근에서 숙박을 할 정도다.

양복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앞으로도 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이 전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도립국악단은 어린이국악단을 포함해 창악·기악·무용 등 1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국악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새얼굴

“불굴의지… 막강해군 만들겠다”

문 병 옥 제3함대사령관

“낡은 사고방식과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헌신적인 용기와 불굴의 의지로 ‘언제든 싸우면 이기는 상승함대’를 건설하겠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문병옥(52) 제3함대사령관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와 싸워도 이기기 위한 전투태세 완비와 합리적인 부대관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인화단결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문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35기로 합참 기획참모차장·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대변인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종단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폭염 속 수돗물 끊겨 9일째 고통

해남 어불도 주민들 해저상수관 파열 공급 중단

최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 어불도 주민들이 해저 상수관 파열로 지난달 28일부터 9일째 수돗물 공급이 끊겨 고통을 겪고 있다.

어불도 주민들은 송수관로를 통해 하루 50t가량의 물을 공급받아 왔으나 지난 6월 송수관로 파열로 1주일간 물공급이 중단된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다.

어란마을과 어불도간 785m의 해저에 설치한 150㎜의 송수관로중 가운데 한 곳이 파손돼 물공급이 끊긴 탓이다.

군은 11년 전에 설치한 해저 송수관로를 지나는 대형 선박이 건드리거나 조업 어선의 닻에 걸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남군은 선박을 동원해 운반급수에 들어간 데 이어 잠수부를 불러 송수관 응급복구에 나섰다.

주민 김모(56)씨는 “부실 공사 때문인지 송수관로 파손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 식수난이 심각한 상태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불도에는 69가구 16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진도 단호박 일본간다

농가, 1차분 21t 바이어와 수출계약

진도군에서 생산된 단호박이 일본 수출에 나섰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 단호박 농가 29가구가 공동으로 일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 1차분 21t(3000여만원 상당)을 지난달말 일본으로 수출했다.

올해 하반기 수출하기로 추가 계약한 물량은 50t으로 모두 7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진도군은 현재 29농가가 20ha에 걸쳐 300t의 단호박을 재배해 연간 7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서울 가락동 시장 등에서 고품질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진도 단호박은 해충 피해를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터널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제주도보다 수확 시기가 빨라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

진도군은 단호박 수출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대표 조경일 작목반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진도 단호박 농가들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더욱 질 높은 단호박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인생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062-383-898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융자 12억
■토지 164평 건물 598평 (매가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예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834㎡(250평)- 매가 평당 1,300만원(롤렘버스극장과 메가박스중간사거리카도)
■3,224㎡(975평)-평당950만원
■1,651㎡(500평)-평당900만원

건물(임대용,투자용)
■(농장) 73,000㎡(2만2천평)전, 답 평당 10만원(동산동)장기투자로 좋은곳
■(공장가능) 송촌동 자연녹지 7,724㎡ (2,200천평)전(매매가평당55만원)
■(상가)상무역주변 1층 약100평 매가 평당2,300만원(브랜드의류등 적합)
■(농장)나주 산포 50,000㎡(1,5000평) 평당35만원
■(주택)안청동 토지843㎡(255평) 주택 35평 매매가 평당 85만원
■(기타용도)동림동 준주거지역(1,352평)매매가 평당 350만원(예식장, 병원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0평, 150평, 100평 매물(다량보유)
매도 : 북광주 나들목 첨단2지구 인근 일반주거지역 약 2,000평
4차로접 (물류센터, 공장)적합 평당 100만원
매도 : 장성삼서면 계획관리지역 2,300평(공장, 물류센터, 창고)적합 4차선 도로접 제곱미터당 45,374원
매도 : 첨단지구인근 진원 산동리 임야 5,000평 3,000평 평당 10만원(야산), 근린벨트(농원, 농장)적합
매도 : 주유소 및 물료 센터 부지 약1900평 건물 110평 매매가 24억원 주유소(현재성업중)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공장 매매, 임대 전문 공장매매, 임대, 다수 모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탑공인중개사

◉광천동신축상가임대◉
■건물 총 면적 : 1388㎡(420평)
■층별 건물 면적 : 413㎡(125평) ※ 9월말 준공예정

층	면 적	권장업종	비 고
1	181㎡ (55평)	약국, 미용실, 식육점 소매점, 마트, 청과물	·현재 70평 입점확정
2	171㎡ (52평)	치과	입점확정
	241㎡ (73평)	학원, 의원, 레스토랑	분할가능
3, 4	413㎡ (125평)	의원(병원), 체육관 학원, 사무실	분할가능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구 송원대학 정문) 신축상가로써 대림아파트 1096세대와 주변 기아자동차/주변세대 약 3,000세대가 활동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와 양면도로 및 양쪽 출입가능

신세계 및 터미널 광장 내 매주 1회 공연등으로 유동인구 급증!! 최고의 상권
◉ 광천터미널 내 상가임대 ◉
■공용면적 : 96.36㎡(29.15평)
■ 전용면적 : 66㎡(20평)
■보증금/월세 : 70,000,000 / 2,300,000
■비전 있슴

◉ 임대문의 ◉ 대림 124동 후문 입구
☎ 062) 368-0789 / H.P 010-3602-4840